

집값 폭등에 주택 유무 자산 격차 '10배'

4년간 집값 세종 41%·서울 26.1% ↑

자산 증가 속도, 소득 비해 두 배 빨라

최근 몇 년 새 집값 폭등으로 주택을 1채라도 가진 가구와 그렇지 못한 가구의 자산 격차가 10배 수준까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별 소득 상·하위 10%의 월평균 총소득 격차는 23배로, 자산보유액 기준 상·하위 10%의 격차(5.2배)보다 훨씬 컸다. 우리나라 가구의 총 자산 중 90%는 부동산 관련 자산이며, 금융 자산은 10%에 불과했다.

통계청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한국의 사회동향 2022'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인구, 노동, 주거, 소득·자산 등 영역별로 각계 전문가 의견과 주요 동향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2018년 1월 대비 2021년 1월 주택 매매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매매가격 기준으로 가장 크게 증가한 곳은 세종시로 이 기간 동안 무려 40.1%가 올랐다. 이어 서울 26.1%, 대전 21.3%, 경기 17.8% 순으로 급등했다.

전세가격 변화도 매매가격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흐름이다. 매매가격이 크게 상승한 세종(26.9%), 서울(14.7%), 대전(11.9%), 대구(10.3%), 경기(8.1%)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였다.

주택가격 변화가 가구의 자산 변동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면 같은 기간 무주택임차가구의 순자산 증위값은

339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610만원 증가했다.

1주택 자가 가구는 2억1000만원에서 2억6500만원으로 5500만원 늘었고, 다주택 자가 가구는 5억3000만원에서 7억6000만원으로 2억3,000만원이나 증가했다.

순자산 규모는 무주택임차가구 대비 1주택 가구는 6.2배에서 6.6배로, 다주택 가구는 15.6배에서 19.0배로 증가해 격차가 더 벌어졌다.

2018년 대비 2021년 기준 순자산 규모의 변화 흐름을 보면 주택 유무에 따른 자산 격차는 지역에 따라 더 벌어졌다.

서울의 경우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6.5배에서 9.5배로, 다주택 가구는 16.0배에서 20.7배로 격차가 더 커졌다.

서울외 수도권은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6.7배에서 8.5배

로, 다주택 가구와는 15.6배에서 18.4배로 서울보다는 격차가 다소 줄었다.

광역시를 제외한 지방에서는 무주택 가구에 비해 1주택 가구는 5.6배에서 6.4배로 격차 폭이 줄었지만 다주택 가구는 12.7배에서 20.2배로 격차가 큰 폭으로 벌어졌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준형 명지대학교 교수는 "대부분의 지역이 주택가격 급등을 경험한 2018년과 2021년 사이 무주택 가구와 자가 가구 간의 자산 격차가 벌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가구당 평균 소득은 4027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31.6%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자산액은 가구당 평균 2억5120만원에서 4억1755만원으로 66.2% 늘었다. 소득보다 자산이 훨씬 더 빠르게 늘어난 셈이다. /뉴스

올해 광주·전남 중소기업에 1조779억 지원

12월 현재 광주·전남 1만1686개 기업 자금지원 혜택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올해 광주·전남지역 1만여개의 중소기업에 대해 1조원대 자금을 지원했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13일 광주시,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상공회의소 등 중소기업 지원 기관과 금융기관 모집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광주·전남지방 중소기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는 이날 최근 광주전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중소기업지원자금(C2자금) 운용현황 및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12월 현재 광주·전남지역 소재 1만1686개 중소기업에 대해 C2자금 1조 779억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이날 한국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자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하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한국은행의 금융지원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최근의 고물가, 금리인상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산업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소속 기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홍보하



고 기관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최재호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회의에서 제기된 의견과 건의 사항 중 시행 가능한 사항은 향후 제도 운용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본부장은 이날 "참석 기관들이 더 많은 중소기업이 한국은행 중소기업자금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달라"면서 "특히 금융기관은 최근 경기부진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적극 발굴해 이들 기업들이 저리의 한국은행 중소기업자금을 적기에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권영안 기자

광양만권경제청

체계적인 경관관리 추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광양만권 지역 고유의 자연·문화를 보존하고 훼손된 경관의 개선·복원 등 체계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제7기 CFEZ 경관위원회를 신규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GFEZ 경관위원회는 광양경제청 행정개발본부장을 위원장으로 경관, 조경·산림 등 총 8개 분야, 20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련 기관 추천과 내부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경관위원회 운영기간은 2020년 12월 1일~2022년 11월 30일까지 2년으로, GFEZ 내 읍·면 지역에서 높이 21미터 이상 건축물, 연면적 1000평방미터 이상 공공건축물 및 공작물, 일정 면적 이상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상세계획 등에 대한 심의·자문을 실시한다.

지난 12일에 위촉식 겸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선 경관위원회 위원들은 "GFEZ의 고유한 경관자원을 발굴하고 체계적인 경관형성·관리방안 마련을 통해 GFEZ의 도시 정체성을 확립, 개성있는 도시경관을 창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설 승차권 20~22일 100% 비대면 예매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2023년 설 승차권을 예매를 오는 20일부터 22일까지 사흘간 온라인과 전화 등 100%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설 승차권 사전 예매 대상은 내년 1월 20일부터 1월 24일까지 5일 동안 운행하는 KTX·ITX-새마을·무궁화호 열차 등이다.

예매 첫날인 20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정보화 취약계층(경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21일과 22일 이틀간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으로만 표를 판매한다.

21일에는 경부·경전·동해·대구·충북·중부내륙·경북선이, 22일에는 호남·전라·강릉·장항·중앙·태백·영동·경춘선이 대상, 1인당 1회 6매(최대 12매)까지 예매 가능하고 경로·장애인도 동일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한 예매일인 20일에 전체 좌석의 10%를 배정, 이날에는 ▲만 66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만 전화접수 또는 온라인을 통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도록했다.

전남 수출이 탐 및 유공포상 전수식



전남지역 수출탐·유공 기업 포상 전수식. 전남도는 13일 호철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수출탐 및 유공 포상자 전수식을 갖고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남도 제공

전남도, 무역의 날 수출탐 수상기업 총 30곳 선정

유공자 15명 · 올해 480억 달러 수출 전망

전남도는 13일 호철현대 바이 라한 목포에서 제59회 무역의 날 수출탐 및 유공 포상자 전수식을 갖고 기업 관계자를 격려했다.

전남지역 수출탐 수상기업은 총 30곳으로 제야엔에스가 4억 달러 수출탐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신안 천사같이 1억 달러, 부천공업·대창식품이 5000만 달러, 제일이 3000만 달러, 청광신소재가 2000만 달러, 가리미·에이엔지가 1000만 달러 수출탐 영예를 안았다.

또 비알에스글로벌·제오빌드·티젠 농업회사법인·라인호·엘티아이가 700만 달러, 매그나텍·캠솔루션·어업회사법인 열림푸드가 500만 달러, 장자도어업그룹한국·

어업회사법인 송원수산이 300만 달러, 이백솔루션·어업회사법인 경영수산·북하북수업단·청미래·월드코스트·에프엔디·성문·한들수산·명품전북 영어조합법인·팬코스·어업회사법인 해초·농업회사법인 현농프레쉬가 100만 달러 수출탐을 수상했다.

이어진 수출 유공 포상에선 총 15명이 수상했다. 칠탄산업은 방관혁 삼지예프 대표, 산업포장은 김기섭 현대삼호중공업 책임매니저, 국무총리 표창은 신경우 현대삼호중공업 반장, 최규석 대한조선 차장이 수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은 정병준 북하북수업단 대표, 강경필 부

총공업 대표, 김현성 청미래 대표, 정현택 대창식품 대표, 김경남 에이엔디 대표, 이철호 캠솔루션 부장, 문수경 유원산업기술 대표, 김영수 한국핀테크진흥원 센터장, 장현순 농업회사법인 네시피에프엔비 대표, 장선성숙 크리에이티브 대표 등 10명이 수상했고 대운프라스틱 임동욱 대표는 한국무역협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영록 지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인축에 도 불구하고 전남 수출기업의 독보적 기술력과 창의적 도전정신 덕분에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역대 최대 수출액인 480억 달러 달성이 전망된다"며 "값진 성과로 전남을 빛낸 수상자들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전남농기원 '숙면효과' 기능성 토종상추 산업화 성공

기능성 상추 흑하랑 수면건강제품 출시

전남농업기술원은 13일 숙면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상추 '흑하랑' 품종으로 수면건강제품 산업화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흑하랑 상추는 전남농업기술원에서 8년 간의 연구 끝에 지난 2019년 등록을 마친 품종이다. 정식 건강과 수면 효과가 있는 락투신 성분이 3.74mg/g으로 일반 상추에 비해 124배 많다.

농업기술원은 최근 급성장하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변화에 맞춰 흑하랑 고도화를 위해 토종개량 상추 품종 개발과 전문 특화단지 조성, 민간 협력 흑하랑 상추 천연성분 제품화에 힘써왔다. 2018년부터 현장실

증, 시범사업, 정책 사업을 통해 전문 재배단지를 육성해 왔으며 현재 20여 농가가 참여해 재배 면적은 30ha, 생산량은 300t까지 증가했다.

농업기술원은 도내 농가 소득 안정 방안으로 흑하랑 상추 공동 생산자 연합회에 고수 상품(흑하랑·꿀잠상추 흑하랑) 사용을 허락해 생산자가 주도권을 가지고 외부 기업체 수요에 대응토록 했다.

흑하랑 상추는 기능성 프리미엄이 적용돼 일반상추 대비 15~85배 높은 단가로 거래되고 있으며, 가공 원료화에 따른 일시 수확으로 노동력을 25% 줄여 농가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17년 류름과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6개 업체와 민간 협력 체계를 구성해 제품 개발을 추진한 결과 올해 19개의 다양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흑하랑 수면 기능성은 외국 현지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티백과 양갱 제품은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에서 현지 테스트 중이고 해외 유통업체가 직접 해당 나라에 맞는 고유 제형의 상품 개발도 진행 중이다. /권영안 기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이스라엘 진출

내년 1분기부터 대리점 부품 운송 업무에 투입

현대자동차가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XCIENT Fuel Cell)의 이스라엘 진출을 시작으로 중동 수소전기트럭 시장 확대에 나선다.

현대차는 이스라엘 판매 대리점인 콜모빌(Colmobil), 수소 생산업체 바잔(Bazan), 수소충전소 운영업체 소놀(Sonol)에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을 각 1대씩 총 3대 공급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기업이 전달할 차량은 4×2급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이 장착됐으나 한 번 충전으로 400km 이상 주행이 가능하다.

이 중 콜모빌에 공급하는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내년 1분기부터 자동차 부품 운송업무에 투입돼 중동지역에서 상업적으로 운행하는 첫 수소전기트럭이 될 전망이다.

콜모빌과 바잔, 소놀은 이스라엘 정부의 탄소중립 의지에 맞춰 지난해 수소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상호 체결한 데 따라 이번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의 도입을 결정했다. 지난해 이스라엘은 2015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치(NDC)를 2030년 27%, 2050년 85%로 발표할 바 있다.

현대차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중동지역 내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엑시언트 수소전기트럭은 현대차가 세계 최초로 양산한 대형 수소전기트럭으로 현재 한국, 스위스, 독일, 뉴질랜드에서 운행하고 있다. 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공급한 총 35대는 내년 3분기 상업 운영을 앞두고 있다.